

5·18 때 가톨릭센터 6층에도 총탄 흔적

“헬기 금남로 이동하며 무차별 사격”



“윤공희 대주교 사무실 유리창 깨지고 주방에 총탄 박혔다” 증언
전일빌딩·옛 광주은행·전남대병원·광주공원 쪽 사격 증언 잇따라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광주은행 본점에 이어 가톨릭센터(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건물 내부에도 5·18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에 의한 총탄 흔적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관련기사 3·8면>
총탄 흔적이 발견됐던 장소는 당시 윤공희(94) 대주교가 숙식을 해결하고 사무를 봤던 6층 사무실이며, 시민들을 향한 공수부대의 집단발포가 자행된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와는 300m가량 떨어진 곳이다.
150여개의 헬기 사격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 헬기 사격 감정이 진행 중인 옛 광주은행 본점(고층 유리창)에 이어 인근 가톨릭센터 대주교실에서 헬기 사격 총탄 흔적을 봤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당시 투입됐

던 계엄군 헬기가 금남로 상공을 저공비행하면서 고층 빌딩을 향해 조준사격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24일 “80년 5월 광주항쟁 기간 윤 대주교가 쓰시던 가톨릭센터 6층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주방 안쪽 깊숙한 곳에 총탄이 박혔다”면서 “지난 37년간 어떻게 지상에서 쓴 총알이 여기까지 날아들었을까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무더기로 헬기 사격에 의한 총탄흔적이 발견되면서 그 미스터리가 풀렸다”고 광주일보에 밝혔다.
김 상임이사는 “당시 가톨릭센터는 7층 높이로 전일빌딩, 광주은행 본점과 함께 금남로에서 당시 고층빌딩 중 하나였는데

헬기에서 발사된 총알이었다면 설명이 가능하다”면서 “헬기 사격의 잔인성과는 별개로, 광주·전남 천주교의 정신적 지주인 대주교가 거주하고 사무를 보는 공간에 총탄을 쏘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씁쓸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5·18 당시 전남대병원 건물에서도 계엄군 헬기에 의한 사격이 있었다는 의료인의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다.
김 상임이사의 증언과 전일빌딩 헬기 사격 총탄 흔적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옛 광주은행 본점 유리창의 총탄 흔적(감정 중), 전남대병원에서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 5·18 직후 고(故) 조비오 신부·미국인 목사 피터슨씨·10여명의 광주시민 증언 등을 종합하면 계엄군 헬기가 공수부대의 집단발포(21일 오후 1시경) 후 계엄군 헬기가 금남로 상공을 저공비행

하면서 건물에 몸을 숨기거나 광주공원 방면으로 피신 중이던 시민, 다수의 시민들이 머무르던 장소를 향해 조준사격 내지 집중사격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항쟁 직후 조비오 신부 등 광주시민들은 “도청 앞 집단발포 뒤 오후 1시30분부터 3시 사이 계엄군 헬기가 금남로 상공에서 광주공원 방면으로 사격을 가했다”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증언했다.
지난 12일에는 국과수가 감정을 통해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150여개의 총탄 흔적에 대해 “헬기에서 쏜 총탄 흔적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용 무기는 UH-1 헬기 양쪽 문에 거치된 M 60 기관총의 가능성(기총소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남로 상공에 머무르며 상하 고도만 바뀌 사격한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알립니다

고수들의 명강연...지식·교양·지혜의 향연
호남의 리더를 모십니다

리더스 아카데미 1·2·3·4기 주요 강사



표창원 조혜련 서민 조윤범 최진석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5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창사 65주년을 맞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5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 수준 높은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 여러분께 호남 최고의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은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12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8시 30분(호텔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7년 1월31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70)

설 전후 두개의 ‘제3지대’ 뜯는다

국민의당·손학규 연대·연합 협의의 나서기로
반기문 3지대엔 與 충청권·비박 탈당해 합류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에 ‘제3지대’가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범여권과 야권 성향으로 갈려 두 갈래의 제3지대가 태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대선정국에서 정치권 새판짜기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다. <관련기사 4면>
우선, 개혁세력인 야권에선 국민의당과 야권의 대선주자인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적극적으로 ‘연대’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손 의장은 24일 MBC라디오에 나와 “국민의당과의 연대, 연합도 공협회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설 연휴 직후부터 손 의장 측과 본격적인 연대 논의

국회 ‘최순실 청문회’ 지상 토크
국민의당 김경진·이웅주 의원 ▶5면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저희도 화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말로만 무성하던 제3지대에서의 세력 간 연대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보수 성향의 범여권에서는 새누리당 충청권과 비박(비박근혜)계 일부 의원들이 설 연휴 전 동반탈당을 추진하면서 반 전총장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3지대를 형성하기 위한 선도 탈당에는 우선 반 전 총장의 고향인 충북에 지역구를 둔 경대수·박덕홍·이종배 의원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의 이명수·성

일종 의원의 탈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설 연휴 후 탈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중정권에서는 심재철·정유섭·이철규 의원 등도 탈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들은 탈당을 결정한다면 바른정당이 아니라 제3지대에 머물 것이라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해 왔다. 제3지대 탈당파 내에서는 설 전에 10명 안팎의 탈당이 이뤄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새누리당의 추가 탈당이 이뤄진다면 범여권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제3지대 탈당파 등 3개 그룹으로 분화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대선후보 완전국민경선제로 선출

모바일투표·결선투표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를 완전국민경선제로 선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경선규칙 조율을 맡은 당헌당규개정 정책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참여를 원하는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투표가 대의원이나 권리당원 투표와 동등한 가

치를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선 룰은 2012년 대선 경선 룰과 대부분 유사하다. 또 선거인단은 탄핵 전에 1차로, 탄핵 후 2차로 모집하기로 했다. 특히 강력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 미달 시 1, 2차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양 위원장은 전했다. 투표는 모바일(ARS) 투표, 인터넷 투표, 순회경선 투표, 최종 현장투표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시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시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